

탄소섬유 및 탄소복합재료 開發에

2년간 33만불投入, UNIDO가 技術支援

科學技術處는 1월 16일 科技處회의실에서 張性泰기술협력관과 UNDP駐韓대표인 Subbaraman 씨 및 忠南대학교 총장간에 「탄소섬유 및 탄소복합재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서명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2천년대를 향한 중점추진분야중 신소재개발 지원을 위한 것으로 향후 2년간에 걸쳐 33만불을 투입, UN공업개발기구(UNIDO)의 기술지원을 통해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및 탄소복합재료개발에 관한 기술축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업은 한국산 펫치를 이용한 탄소섬유 및 탄소복합재료 생산기술을 개발·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한 생산장치의 설계, 건설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탄소섬유의 생산비절감과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UNDP는 87년부터 91년까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술수준 선진화, 산업부가가치향상 등을 위한 24개 기술지원사업에 약 1천만불을 지원할 계획이다.

科學財團 이사장에

崔順達 科技大學長

政府는 2월 3일 韓國科學財團 이사장에 崔順達 한국과학기술

대학장을 임명하고 韓國科學技術大學長에는 李正五 한국과학기술원장을 겸임토록 임명했다.

한편 科學財團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던 金聖鎭 韓國電算院長은 전산원장직만 맡게 된다.

90년대 이끌 12대産業 선정 産銀, 반도체 등 첨단분야

産業銀行은 90년대에 우리나라産業을 주도할 成長産業으로 반도체, 컴퓨터 등 12개産業을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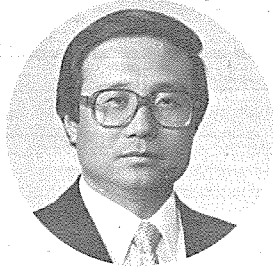
정했다.

이 성장産業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파인세라믹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특수기능섬유, 교환기, 디지털오디오 및 오디오, 항공기, 소프트웨어, 뉴미디어 등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産業銀行은 1월 13일 특별조사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들 12개産業이 90년대 우리 경제를 이끌 성장産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공동연구개발체제강화 △고급정예기술인력양성 △부품국산화추진 등 다각적인 육성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大德團地 世界的 연구단지로,”

李과기처장관, 新年하례회서 강조



(李 台燮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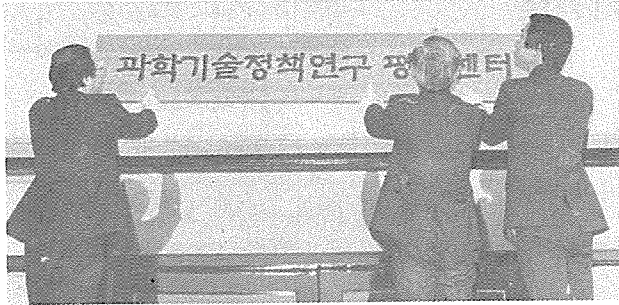
李台燮 과학기술처장관은 1월 17일 오전 大德연구단지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民間연구소 간부 4백여명을 초청, 오찬을 겸한 新年하례회를 한국에너지연구소 식당에서 가졌다.

李台燮장관은 이날 『금년들어 科學意志가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훌륭한 연구업적이 많이 나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大德연구단지가 大田이라는 대도시가 인접해 있고 각급 연구소가 밀집해 있어 세계적인 연구단지로 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대덕연구단지로 와야 한다는 認識이 보편화 되도록 좋은 연구단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科學技術政策연구 평가센터 發足

科技院 부설로...國策과제 評價업무등 수행



◇科學技術政策연구평가센터가
科技院 부설로 發足, 現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韓國科學技術院 부설 科學技術政策研究평가센터(소장 李鍾郁)가 1월 27일 李台燮 과학기술처 장관, 李正五과학기술원장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 센터는 앞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는 정책과제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와 국책 연구개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센터는 연구조직을 연구 프로젝트 중심의 Matrix System으로 운영하고 연구인력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전공자를 고루 갖출 예정이다.

또한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해 학계·업계·정부 관계인사로 구성되는 10명 내외의 연구자문위원회와 각 분야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의 연구 및 운영비는 주로 정부재원으로 충당하며 제한된 범위내에서 산업계 및 공공기관, 그리고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수탁연

구도 수행하며 해외 유사기관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 협력사업도 전개하게 된다.

이 센터는 올 연구과제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과학기술투자의 흐름 분석과 전망 ▲생산자동화기술의 발전 및 확산전망 ▲스웨덴·일본·호주등 對선진국 협력방안연구 ▲분야별 기술백서발간을 위한 조사연구 ▲첨단기술의 발전전망과 기술개발의 심층분석 ▲전략산업 제품의 기술수준측정 등의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韓國電算院 업무개시

초대원장엔 金聖鎭씨

韓國電算院(원장 金聖鎭)이 1월 30일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電算院은 우리나라 전산망사업의 촉진과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전산망 관련기술의 표준화, 전산계산조직의 이용기술발전, 국가기관의

전산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전산망에 관한 정책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전산원은 박사연구원 10여 명과 지원부서인력등 모두 25명 정도로 운영되며 국책 전산망사업의 실질적인 관리기능을 맡게 된다.

環境科學연구협 창립

초대회장에 洪淳佑교수

環境분야 학술단체의 상호협력 증진 및 環境科學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한 韓國環境科學研究協議會가 1월 23일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했다.

韓國廢棄物學會 등 16개 관련 학회 대표위원과 관계인사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초대회장에 洪淳佑교수(서울대 자연대·한국수질보전학회장)를 선출하고 앞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일반 대중에의 지식제도 ▲국내외 환경학술 정보교류 ▲환경과학 전문지 발간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구성된 환경과학 연구협의회의 발기 주체 학술단체는 한국대기보전학회, 한국수질보전학회, 한국우수학회, 한국독성학회, 한국환경성물연변이발암원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폐기물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생물학회, 한국환경위생학회, 한국환경독성학회, 한국환경농학회, 한국해양학회, 한국음향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대한환경공학회 등 16개 학회.

86년도 事業실적 및 결산 承認

科總 86년도 最終이사회서 定期總會 2월 20일 개최키로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86년도 最終理事會가 1월 27일 하오 科總회의실에서 열렸다.

趙完圭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鄭助英 사무총장으로부터 86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사항을 접수한 후 의안심의에 들어가 86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新規會員단체의 가입을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제22회 정기총회를 오는 2월 20일 하오 3시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하고 수상자(안)도 승인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가입 승인된 신규회원단체는 다음과 같다.

▲社團法人 韓國放射性同位元素協會(회장 朴益洙, 회원수 6백명) 특별회원 ▲(株) 大宇(대표 洪性夫, 주요사업 건설업) ▲(株) 럭키(대표 許愼九, 주요사업 PVC제품·의약품등 제조) ▲現大重工業(株)(대표 鄭夢準, 주요사업

신박건조 및 수리판매·산업기계 제조판매등) 이상 창조회원

유홍선 박사 취임

在英한국과학기술자협회

在英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장에 유홍선박사(32세·英 임페리얼大)가 취임했다.

올 한해동안 在英科協을 대표

할 유박사는 77년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Ph. D를 획득했으며 중앙대학교에 재직하다 渡英했다. 유박사의 주전공은 항공공학 중에서도 空氣力學.

科技界人事

▲중앙기상대 예보국장 鄭乙永(부산지대장) ▲중앙기상대 기후국장 朴容大(강릉지대장) ▲중앙기상대 부산지방기상대장 安明福(예보국장) ▲중앙기상대 강릉지방 기상대장 직무대리 申鉉鎭(기획과장)



科總 제87-1호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定款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22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

다 음

- 日 時：1987년 2월 20일(金) 15:00
- 場 所：全經聯會館 국제회의실
- 案 件：① 1986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
② 198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③ 임원선출
④ 기 타

1987년 2월 일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 長 趙 完 圭

代議員 各位

2천년대 향한

國策연구개발 中長期계획 樹立

科技處, 을 주요업무 및 行事계획 일정 밝혀

科學技術處는 올해에 호주를 비롯 불란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과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갖는등 국제간의 과학기술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금년에는 2천년대를 향한 국책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放射性폐기물 처리시험시설 및 重水爐 핵연료 양산시설에 대한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科技處가 밝힌 올해에 계획된 과거처 주요業務 및 行事계획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月: ▲'87특정연구개발사업 세부계획 확정

◇ 2月: ▲제28차 原子力위원회 ▲20日 科技院 제13회 전기학위 수여식 ▲韓·伊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태리 로마) ▲제1회 기술진흥심의회 실무위원회

◇ 3月: ▲제1회 정부출연 연구기관장회의 ▲2日: 科技院 신입생 입학식, 科學技術大學 신입생 입학식 ▲韓·濠 과학기술장관회의(호주 캔버러) ▲기업기술훈련원 확충개원식 ▲제1회 기술진흥심의회 ▲放射性폐기물 처리 시험시설 준공식 ▲제1회 기술진흥 확대회의 ▲23日: 제27회 세계 氣象의 날 행사

◇ 4月: ▲'88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2천년대를 향한 國策연구개발사업 중장

기계획 수립 ▲제2회 기술진흥심의회 실무위원회 ▲21日: 제20회 科學의 날 기념식, 제43차 E-SCAP총회 참가(태국 방콕, 21~30일) ▲26日=제4회 전국 퍼스널컴퓨터경진대회 ▲춘계 氣象업무발표회 및 기상사진전 개최

◇ 5月: ▲제3회 기술진흥심의회 실무위원회 ▲제10차 WMO총리 참석 ▲제2회 기술진흥심의회 ▲제1회 기술진흥지역협의회 ▲重水爐핵연료 양산시설 준공식

◇ 6月: ▲제2회 기술진흥 지역협의회 ▲제4회 기술진흥심의회 실무위원회 ▲15日: 防災기상비상예보체제 운영 ▲29日: '87아시아化學학술회의(서울, 29~7.3) ▲韓·佛 과학기술장관회의(서울)

◇ 7月: ▲제10차 국내의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서울, 6~18일) ▲제5회 기술진흥심의회 실무위원회 ▲제219차 원자력위원회 ▲제3회 기술진흥심의회

◇ 8月: ▲제2차 韓·日기술협력위원회(日本 東京) ▲21日: 科技院 제13회 후기학위수여식 ▲제6회 기술진흥심의회 실무위원회 ▲제33회 전국과학전람회 개관식

◇ 9月: ▲특정연구개발 사업정책협의회 ▲10日: '88올림픽 대비 경기장 기상환경조사 ▲제4회 기술진흥심의회 ▲다목적 원자 연구로 기공식 ▲제3회 기술진

흥 지역협의회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제33회 전국과학전람회 시상식

◇ 10月: ▲제7회 기술진흥심의회 실무위원회 ▲제9회 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개관식 ▲제4회 기술진흥지역협의회 ▲제9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시상식

◇ 11月: WMO 제9차 기본조직 전문위원회 참석 ▲제8회 기술진흥심의회 실무위원회 ▲제5회 기술진흥심의회

◇ 12月: ▲제2회 정부출연 연구기관장회의 ▲우수연구원 포상 ▲제2회 기술진흥확대회의 ▲제220차 원자력위원회 ▲ESCAP WMO 제20차 태풍위원회 참석 ▲韓·獨 과학기술장관회의(서울)

國產개발기술 64種 告示

科技處, 자금등 지원

科學技術處는 수입대체 기계류 부품 및 소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技術開發促進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발기술과 지원사항을 구랍 30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대상기술은 국산 신기술제품으로 보호조치된 기술과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기술, 기타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가 큰 기술로써 자금 지원을 비롯 기술지도, 정보제공 및 연구개발지원 등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고시된 국산개발기술은 「電氣式 磁力 制動방식을 이용한 電磁브레이크 設計技術」등 64종.

原電건설 國民 74%가 찬성

原子力産業會議, 갈렙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原子力發電所의 건설을 찬성하고 있으며 반수정도가 안전성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韓國原子力産業會議(회장 朴正基)가 한국갈렙조사연구소에 의뢰, 지난해 10월 2일부터 18일동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등 5개도시와 경북 월성군 및 경남 양산군등 原電소재지역의 18세이상 高卒 男女 2천21명을 대상으로 「原電에 대한 의식조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原子力の 평화적 이용에 대해 「찬성」한 응답자가 전체의 86.5%, 「반대」가 10.3%, 「모르겠다」가 3.2%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에서 原電을 계속 건설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찬성」이 74.4% 「반대」가 22%, 「반반이다」가 3.6% 등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原電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자신의 거주지역 10km 이내에 原電을 건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73.5%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리고 우리나라 原電의 안전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이 20.8% 「약간 안전하다」가 27.5% 「보통이다」

31.9%, 「별로 안전하지 않다」13%, 「위험하다」와 「모르겠다」 각각 3.4% 등으로 나타나 안전하다는 평가가 48.3%로 안전하지 않다는 16.4%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국내기술만으로 原電건설이 가능한가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가 77.3%로 「불가능하다」는 응답 19.8% 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通信講座教育으로 대체

RI일반면허 응시자격

科學技術處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기관이 날로 급증함에 따

라 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RI취급면허증 일반면허(高校 이상 졸업자) 응시 자격요건으로 4주의 教育訓練을 받아야 하던 것을 通信講座 教育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4주 교육훈련을 위해 大德연구단지의 에너지연구소로 직접 가야했던 것을 집이나 직장에서 업무를 보면서 통신교육을 수료하고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통신강좌교육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회장 朴益洙)에서 2월부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간은 9개월이며 수강료는 통신교육비 9만원과 실습비 5만원이다.

科技處는 앞으로 RI취급 감독면허나 특수면허에도 이같은 방법을 적용,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다.

5월 2째 일요일부터 서머타임제 實施

政府는 매년 5월 둘째 일요일부터 10월 둘째 일요일까지 5개월동안 標準時를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科學技術處는 1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日光결약時間制」 실시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머타임제 실시계획안은 오는 5월 둘째 일요일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시작하여 오는 10월 둘째 일요일 오전 3시를 오전 2

시로 환원토록 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標準時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실시되는 이 서머타임제는 앞으로 관계기관 및 당정협의를 거친 후 오는 3월 25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서머타임제는 현재 미국, 영국, 서독, 홍콩, 중공등이 3~5월초에서 9월 중순~10월 말 사이에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49년, 50년, 55년, 56~58년, 59~60년에 각각 실시했다.

無人型 다목적 飛行船 개발

機械研, 空中사진촬영·탐사등에 활용

空中 이동홍보방송을 비롯해서 공중사진촬영과 정찰 및 탐사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多目的 飛行船이 韓國機械研究所 연구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機械연구소 昌原本所 항공기계실 崔동환실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팀은 지난 85년 2월부터 「다목적비행선 개발」에 착수한지 1년 10개월만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조정자에 의해 무선 조종되는 無人型 비행선을 개발해 내는데 성공했다.

개념 설계단계에서부터 風洞실험, 제작 및 비행성능시험 등의 전 과정을 거쳐 제작된 이 비행선은 항공선진국인 日本의 無人형과 英國 등지의 有人형의 최신 기술을 종합하여 제작된 것.

특히 日本의 무인형 비행선에는 없는 10cc급 엔진 2대에 의해 구동되는 Ducted Fan 추진기가 장착되었으며 추진기의 T-tilting(추력방향변환)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이 비행선은 길이 13m, 총중량 100kg급의 軟式 비행선으로 좁은 공간에서의 이·착륙뿐만 아니라 저공비행이 가능해 '88올림픽을 앞두고 공중이동홍보(광고) 방송을 비롯해 비디오 공중촬영 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팀은 비행선 제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부양기체(헬륨)와의 기밀성을 갖는 기낭의 제작이었는데 기밀성이 유지되면서도 비강도가 충분한 특수코팅원단을 국내업체에 의뢰, 직접주문 생산하여 활용함으로써 해결하였다.

그런데 연구팀은 이 비행선 제작에 앞서 선행연구단계로 길이 8.14m, 기낭직경 2.44m, 기낭체적 25.44m³의 연식비행선을 1차로 제작, 비행성능시험을 거쳐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여 1차 시제품개발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길이 13m, 총 중량 100kg급의 2차 시제품을 제작한 것이다.

컴퓨터 入力 한글 手書 표준화

OCR用紙에 써서 바로처리

각종 자료를 손으로 직접 써서 컴퓨터에 入力하는 방법이 標準化됨으로써 앞으로 한글로 작성된 소프트웨어의 처리가 상당히 간편해졌다.

工業振興廳은 韓國情報科學會와 공동으로 2년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OCR(광학식 문자인식) 방법을 이용해 연필, 만년필, 볼펜 등의 필기구로 쓴 모양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한글의 手書문자형과 值數에 대한 표준화를 확정, 발표했다.

이 방법은 각종 자료를 OCR 용지에 직접 손으로 작성하고 O

CR 판독기를 통해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인데 방대한 양의 자료를 빠르게 대량으로 입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한글컴퓨터 입력방식은 일반용지에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키펀치로 처리한 다음 카드 판독기를 통해 입력해야 하므로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고 대량 입력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PTC理事로 選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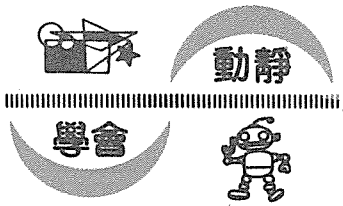
電子通信研究所

韓國電子通信研究所(소장 景商鉉)는 최근 태평양電氣通信協議會(PTC: Pacific Tele Communications Council)의 理事로 선임됐다.

동연구소는 지난 78년에 PTC에 가입, 매해 1월 중순에 열리는 PTC 정기총회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전기통신의 발전방향 및 기술수준 등을 회원국들에게 알리는 한편 전기통신기술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와이에 본부를 둔 PTC는 태평양 지역의 전기통신 관련 영리 및 비영리기관, 연구소, 기업체, 대학교수 등 1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통신에 관한 정보를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세계 전기통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선출된 이사는 영리회원 37, 비영리회원 10개 기관으로 우리나라는 1월 1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1년간 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大韓造船学会

大韓造船學會(회장 洪性完)는 올해에 지난해 수립한 학회 장기 발전계획을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한편 첨단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년에는 최근 선박유체 역학 연구의 중심과제인 비선형 파이프론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美國의 Theodore Y. Wu교수(Caltech大)와 Chiang C. Mei교수(MIT대), 日本의 H. Miyata교수(東京大)를 초청, 비선형과 이론에 대한 세미나를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개최하여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造船관련도서 간행 및 造船工業규격제정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大韓電氣学会

大韓電氣學會(회장 高明三)는 금년은 學會誌 및 論文誌 발간사업에 역점을 두어 게재논문 편수와 지면을 대폭 강화하여 최신연구결과 및 기술정보를 신속히 제

공하는 한편 하계학술회의를 비롯 연구회, 전문기술세미나, 학술 발표회등 20여회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전기공학의 향상·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방침이다.

전국종합학술대회인 하계학술회의를 7월 초에 개최하고 학회 산하 전문분야 연구회인 「전기기기」「계측제어」 등 9개 연구회별 학술발표회를 봄과 가을에 각 두차례씩 학술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학의 달 기념강연회와 외국의 저명학자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하며 전문기술분야에 관한 세미나 및 워크숍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外國電氣學會와의 국제교류를 활발히 꾀하는 한편 전기기술, 교육등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大韓金屬学会

大韓金屬學會(회장 姜日求)는 금년에 우선 金屬用語集을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金屬用語辭典 발간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속학회는 지난 4년여에 걸쳐 추진해온 金屬用語 6천 단어를 수록한 金屬用語集발간사업을 3월까지 마무리짓고 4월부터는 바로 보완작업에 들어가 연내로 수정 증보판을 발간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어해설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3월말 발행예정인 금속용어집

은 한정부수만을 발간, 회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同學會는 또 올해에 금속분야의 기술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강습회등을 개최할 계획인데 오는 7월 8~10일 연세대 공대에서 熱處理강습회를, 7월 21~22일 한양대 공대에서 분말야금 강습회를, 7월 30-31일 울산지역 경금속공업단지에서 학술강연 및 공장견학회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韓·獨공동심포지움을 11월 중순경 KAIST 국제회의실에서, 大韓熔接學會와의 공동심포지움은 10월 23일 고려대 공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大韓化学工学会

大韓化學工學會(회장 朴元圭)는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제주도 KAL 서귀포 관광호텔에서 産·學·研 촉매개발 협동방안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化學工程중 약 90%가 촉매를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계·학계·연구소간의 촉매개발 협동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KAIST 金英傑교수의 주제강연과 「정부의 특정과제 및 기초연구 지원방향」에 대한 과거처 金虎起박사의 설명에 이어 대학, 연구소, 산업계의 촉매연구 현황과 해외의 산학협동사례발표가 있는 다음 성공적인 촉매개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있게 된다.

科總회원단체 '87년도 국제학술회의 개최 일정

| 단 체 명 | 대표자 | 행 사 명 | 일 자 | 장 소 |
|--------------------|-----|---------------------------|---------------|----------|
| 대한광산학회 | 전용원 | 석탄개발 및 안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 4. 22-24 | 세라튼위커킬호텔 |
| 대한화학회 | 전민제 | '87아시아 화학학술대회 | 6. 29-7. 3 | 롯데호텔 |
| 한국품질관리학회 | 박재만 | 한·중 품질관리심포지움 | 7. 8-7. 11 | 세종호텔 |
| 한국식물조직배양학회 | 김만수 | 한·중 식물조직배양심포지움 | 7월 | 농촌진흥청 |
| 한국물리학회 | 김정흠 | 원자핵과 대칭성에 관한 국제회의 | 8. 20-8. 22 | 고려대학교 |
| 대한암학회 | 김진복 | 제8차 아·태지역 암학회 학술회의 | 9. 14-19 | 롯데호텔 |
| 대한방사선의학회 | 김한석 | 제5차 아시아·대양주 방사선 의학회의 | 9. 21-25 | 힐튼호텔 |
| 한국생약학회 | 도상학 | 제2회한·일 천연약물심포지움 | 9월 | 서울대학교 |
| 한국요업학회 | 한기성 | 한·미요업과학기술자 학술회의 | 10. 14-24 | 서울대학교 |
| 한국폐기물학회 | 이승무 |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 10월 | 국립환경연구원 |
| 대한피부과학회 | 임수덕 | 제5차 한·일 피부과학술대회 | 11. 6-11. 7 | 제주그랜드호텔 |
| 한국환경성돌연변이 발암원학회 | 이상섭 | 한·일 독성심포지움 | 11. 20-11. 22 | 보건연구원 |
| 한국체육학회 | 김상국 | 국제 스포츠과학세미나 | 12월 | 전경련회관 |

科總회원단체 2월중 학술행사계획일정

| 단 체 명 | 대표자 | 행 사 명 | 일 시 | 장 소 |
|-----------|-----|----------------------------|----------|-------------|
| 한국식물보호학회 | 조용섭 |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 2. 6 | 서울대학교 |
| 공기조화냉동공학회 | 최상홍 | 특별회원초청 업계전문간담회 | 2. 6 | 프라자호텔 |
| 대한공업교육학회 | 이재원 | 학회간 공동학술발표회 | 2. 6-7 | 한국교육개발원 |
| 한국정보과학회 | 김중상 | 동계데이터베이스 학술세미나 | 2. 12 | 건국대학교 |
| 한국목재공학회 | 정대교 | 총회 및 학술발표회 | 2. 12 | 임업시험장 |
| 한국화학공학회 | 박원규 | 산·학·연 촉매개발 협동방안에 관한 워크숍 | 2. 12-14 | KAL서귀포관광호텔 |
| 대한화학회 | 전민제 | 총회 및 학술발표회 | 2. 12-14 | 고려대학교 |
| 한국임학회 | 권오복 | 총회 및 학술발표회 | 2. 13 | 서울대학교 |
| 한국농업기계학회 | 정창주 | 학술발표회 | 2. 13 | 서울대학교 |
| 한국원예학회 | 김영래 | 총회 및 학술발표회 | 2. 14 | 성균관대학교 |
| 한국잠사학회 | 권영하 | 총회 및 학술발표회 | 2. 20-21 | 동아대학교 |
| 한국작물학회 | 허문희 | 학술발표회 | 2. 21 | 서울대학교 |
| 한국측지학회 | 안철호 | 87년도 정기총회 | 2. 21 | 건설회관 2층중회의실 |
| 한국농업교육학회 | 정지웅 | 농촌 청소년교육에 관한 세미나 | 2. 27-28 | 서울프레스센터 |
| 대한국토계획학회 | 김안제 |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 2. 28 | 서울시립대학교 |

大韓電子工學會

大韓電子工學會(회장 徐廷旭)는 올해에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고도화와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産學協同에 주력하는 한편 2천년대를 향한 학회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를 실시할 작정이다.

또한 선진외국의 최근 연구동향과 최신 정보교류를 위해 우리나라와 협력협정이 체결된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대학 전자공학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연구」와 「대학원 전자공학 교육현황조사」등 연구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첨단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이크로 프로세서, 반도체기술, 광통신, CAD, 컴퓨터통신, 컴퓨터 설계기술 등에 관한 단기강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선정보산업분야 기술자의 참고서와 대학에서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음성처리」 및 「로컬에리어 네트워크」 등 2종의 서적을 편찬할 예정이다.

그리고 「통신연구회」 「계측 및 제어연구회」 등 학회 산하 11개 연구회별 전문연구회를 구성하여 전문분야별로 깊이있는 연구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아시아·태평양 전자공학학술회의(TENCON '87)을 IEEE 한국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편 日本 東京에서 개최예정인 韓·日 전자공학학술회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學會誌를 매월 발

간, 회원 상호간의 기술정보 교류 및 대화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직장간사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회원들간의 친목과 유대강화에도 힘써 나갈 작정이다.

韓國情報科學會

韓國情報科學會(회장 金宗相)는 금년에도 목적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會務운영체제의 내실화에 주력, 會勢확장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먼저 정보과학 진흥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건의를 비롯 정보산업 기술인력 및 교육정책 연구사업 실시와 함께 정보산업리뷰심포지움, 전기통신연구과제발표회, 특정연구사업 연구결과발표회, 퍼스컴경진대회(4. 26 잠실체육관 개최 예정)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학술행사로 春·秋季학술발표회(춘계 4. 10~11, 추계 10. 23~24)를 비롯 정보과학세미나, 컴퓨터 심포지움, 전산관련학 박사학위자 세미나와 함께 각종 단기강좌를 개최하는 한편 學會 산하 「전산교육」 「D/B」 「인공지능」 「전문대학」 연구회등 분과연구회별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회원관리의 전산화와 회무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모색해 나가는 한편 오는 10월 자체사무실 마련에 따른 학회사무실 이전 준비작업도 실시할 작정이다.

空氣調和冷凍工學會

空氣調和冷凍工學會(회장 崔相弘)는 올해에는 「습공기 선도」 제작등 각종 표준규격 제정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학술용역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학회 표준국내 기상자료의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공조·냉동·위생분야의 학술용어 제정및 해설작업과 함께 설계·제작·시공·관리표준규격 제정사업을 실시할 작정이며 空調·冷凍·衛生發展史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수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學會誌를 隔月로 발간, 회원들의 학술연구발표의 광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공조·냉동·위생공학편람(기초편)을 발간할 계획이다.

올 학술행사로는 2월 27일 각종 진단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 24일과 10월 23일 두차례에 걸쳐 업체방문 소 강연회를 개최하며 8월 21~22 양일간은 대구지역에서 특별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월 27일, 5월 22일, 9월 11일 세차례에 걸쳐 「에너지 절약」 「크린룸」 「전산」에 관한 강습회를 실시하며 6월 12일과 12월 5일에는 회원들의 학술연구논문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업체 대표를 초청,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며 외국 관련학회와의 국제교류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작정이다.

韓國型 光LAN시스템 開發

三星半導体通信, 大容量단말 수용가능

三星半導体通信(대표 姜晋求)은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근거리 정보통신망(LAN: Local Area Network)인 TRINET-2M 光LAN시스템을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 國産化에 성공해 光LAN 기술에 획기적인 개가를 올렸다.

이번에 삼성반도체통신이 개발한 TRINET-2M 光LAN은 사무실, 연구소, 공장 등에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와 워드프로세서 등 각종 정보단말기기를 루프식으로 연결시켜 고성능, 고품질의 음성과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교환시킴으로써 공장자동화와 사무자동화의 실현을 가능케 해 주는 한국형 光LAN 시스템으로서 光LAN시스템을 국산화시킨데 그 의의가 큰 것이다.

그런데 이 光LAN시스템은 첨단 광케이블을 전송매체로 사용해 경제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단말기를 10대에서 150대까지 확장할 수 있고 대용량 단말들을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스템의 고장이나 회선장애시에는 2중 光 루프 구성을 통한 Loop back 선로를 형성해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시스템이다. 또한 기존 LAN 시스템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빠르며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설치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증설이 용이해 대규모 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여러종류의 단말기들을 접속할 수 있고 대형 컴퓨터 위치에 중간접속장치를 두고 단말기가 집중된 곳곳에 31개까지의 사용자 접속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각 접속장치간의 설치거리는 최대 15km이다.

金星社 중앙연구소 완공

개포단지에 첨단시설 갖춰

金星社(대표 具滋學)는 1월 27

일 강남구 우면동 개포연구단지에서 민간기업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中央研究所(소장 黃賢植)를 완공 했다.

1년동안 모두 3백억원을 들여 준공한 이 연구소는 연 건물 9천 7백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정밀측정실, 가공실, 무진실 등 첨단연구설비를 갖추고 온·습도조절 등의 연구환경이 한국표준연구소와 같은 수준으로 건설되었다.

이 연구소는 앞으로 전자식 VTR, CDP, VDP 등 최신제품개발과 함께 핵심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컴퓨터와 뉴미디어기기 등 시스템기기 개발연구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極超耐熱性 ABS樹脂 개발

韓南化學, 섭씨130도에도 物性 안변해

섭씨 130도에서도 물성이나 성형성이 변하지 않는 極超耐熱ABS수지가 韓南化學(대표 宋炳均) 기술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韓南化學 기술연구소가 2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한 極超耐熱 ABS수지는 자동차나 전자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첨단소재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개발중이거나 샘플 출하단계에 있다.

이 극초내열 ABS수지는 알파 메틸렌계의 초내열 ABS수지보다 내열성, 치수, 안정성, 성형성 등이 뛰어나 ABS수지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화를 이룩한 것

이다.

이번 극초내열ABS수지의 개발로 앞으로 PPO의 수요를 이로 대체, 연간 4백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BS수지의 내열온도는 범용이 90도, 초내열이 110도인데 비해 이번에 개발된 극초내열은 130도로 밝혀졌다.

한편 韓南化學은 기존의 ABS 생산라인에서 이 제품 생산을 추진하면서 수요개발에도 힘을 기울인 데 올 연말부터는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